

오미크론 유행 속 초중고 개학...2주간은 수업 탄력 운영

고위험군 조부모 돌봄 위험...아이들과 접촉 일시중단·최소화 방역패스 중단, 확진자·동거인 격리 안해...광주 1만명대 전망

광주 등 전국 학교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 유행 속에 2일부터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학교발 대규모 확산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백신 미접종자가 대다수인 초등학교의 경우 고위험군인 조부모의 양육 도움을 받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위중증 환자 급증 등도 우려된다.

방역전문가들은 당분간 아이들과 조부모와의 접촉을 일시 중단하고, 교육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섬세한 방역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교육부의 정상 등교 원칙에 따라 2일부터 광주는 물론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교가 개학한다. 다만 이날 11일까지 2주간은 '새학기 적응 주간'으로, 확진자가 많아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학교들은 수업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각 학교에선 등교일에 학생들에게 주 2회 분량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배부하고, 사용법 안내 및 새학기 학교 운영 방안을 설명하는 등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10대 이하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초등학교는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인 사례가 많고 성인에 비해 증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집단확산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 등이 나오고 있다.

실제 광주지역 코로나19 연령별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2차 접종 기준 광주시민 전체 접종률은 86.6%인데 반해 초등학교 5학년이 해당하는 11세부터 그 이하 12만 8781명은 접종자가 단 한명도 없다. 해당연령은 접종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백신접종 대상자인 12~17세(8만9025명)도 2차 접종률 72.5%, 3차 접종률 0%다.

낮은 백신 접종률은 곧바로 확진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광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중 10대 이하 감염비율은 30.4%(2만 2726명)에 이를 정도다.

방역 전문가들은 초·중·고교 개학과 각종 방역조치 완화까지 겹치면서, 조만간 10대 이하 관련 감염세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고, 확진자 동거인도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 각종 방역조치가

완화됐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폭증에 따른 관리 노력 효율화,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에 따른 완화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당장 대규모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미 정부는 초·중·고 개학과 함께 이달 초·중순께 일일 신규 확진자가 현재(13~14만명)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최대 35만명이 될 것이라는 예상치를 내놔왔으며, 이 수치를 광주에 도입하면 같은 기간 일일 신규 확진자 1만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19 광주시 민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최진수 전남대 의대 명예교수는 "초·중·고교생 중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가볍고, 활동력이 강하다는 특성 등을 고려해 위생교육 및 방역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각 가정에서는 개학과 동시에 당분간 아이들과 고위험군인 조부모 등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고, 아이의 상태를 세심히 관찰하고 조치하는 등 학교 방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광주·전남은 이날도 0시 기준 광주 4806명, 전남 3283명 등 808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등 일주일째 7000~80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박진보 기자 lucky@kwangju.co.kr

김여송 광주일보 발행인 신문협회 부회장 5번째 연임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5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김여송 <사진>광주일보 발행인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지난 2014년 부회장에 선임된 이후 다섯 번째 연임이다.



광주일보 회장에 이어 2014년 3번째로 한국신문협회 부회장에 선임된 바 있다.

신문협회는 김발행인 이외에도 경향신문 김석중·서울경제 이종환·한국경제 김정호·매일신문 이상택 발행인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김 발행인은 광주일보에서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에 걸쳐 15년 동안 정치담당 편집 부국장으로서 청와대를 출입, 전국 일간지 가운데 최장기 청와대 출입기자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호남지역 언론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방북 취재했다.

호남지역 언론인으로서는 김남중, 김중태 전

문 이상택 발행인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 앞서 열린 제60차 정기총회에서는 이사 22명, 감사 2명 등 모두 24명의 새 임원진도 구성했다. 새 부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2024년 정기총회까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오징어게임' 이정재·정호연 미배우조합상 '남녀 주연상'

비영어권 배우 첫 연기상...TV드라마 스타트 앙상블상도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배우 이정재와 정호연이 미국배우조합상에서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각각 수상했다. <관련기사 17면> 이정재와 정호연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샌타모니카 바커행어 이벤트홀에서 열린 제28회 미국배우조합상에서 TV드라마 부문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품에 안았다. 한국 배우가 TV드라마 연기로 미국배우조합상에서 주연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비영어권 배우가 미국배우조합이 주는 연기상을 받은 것도 최하다.



미국배우조합상 포즈 취하는 이정재와 정호연 (왼쪽)

이정재는 브라이언 콕스(석세스), 빌리 크루덤(더 모닝 쇼), 키에라 클린(석세스) 등 경쟁 후보들을 제치고 수상에 성공했다. '오징어 게임'으로 받은 첫 연기상이다. 그는 시상대에 올라 "너무 큰 일이 저한테 벌어졌다"며 "너무 감사하다. '오징어 게임'을 사랑해주신 세계 관객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징어 게임' 팀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정호연은 제니퍼 애니스톤(더 모닝 쇼), 엘리자베스 모스(더 핸드메이드 테일), 리스 위더스푼(더 모닝 쇼) 등 경쟁자들을 제치고 여우주연상을 차지했다. 정호연은 "여기 계신 많은 배우분

들을 TV와 스크린에서 많이 봤다. 여러분을 보며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꿔다"며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진심으로 영광이고 정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오징어 게임'은 456억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시상식에 앞서 발표한 TV 드라마 스타트 부문 앙상블상에도 선정됐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3·1절 맞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

자료·유물 전시...오늘부터 관람 서대문형무소 보이는 곳에 자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탄생 및 활동 등과 관련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전시한 임시정부기념관이 1일 공식 개관했다.

국가보훈처는 제103주년 3·1절인 이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주독립과 민주공화제의 정신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재조명해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건립을 추진했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개관했다"고 밝혔다.

작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일(11월 23일)에 개관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개관이 지연됐다.

기념관은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안산 자락의 옛 서대문구의회 자리엔 연면적 9703㎡ 규모의 지상 4층, 지하 3층 건물로 건립됐다. 일제 강점기에 많은 독립운동가 투옥돼 고문을 당했던 서대문형무소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이다.

3개 상설전시실과 1개 특별전시실에서 1919년 3·1운동부터 현재까지 임시정부와 관련된 자료 1000여 점이 전시됐다. 임정기념관이 지금까지 수집해 소장한 유물 7200여 점 중 일부와 독립기념관 등 다른 곳에서 대여한 자료들이 우선 선을 보였다.

상설전시실은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된 3·1운동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과 역사를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기억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합뉴스

동에서부터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활동을 '군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사람들', '임시정부에서 정부로' 등 3개의 주제로 꾸며졌다.

임시정부 수립의 모태인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과정에서부터 문화·교육·외교·군사·행정 등 임시정부의 분야별 주요 활동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유물과 사진·문서·영상 자료들이 전시됐다.

전시공간 외에 1층 옥외광장의 '역사의 파도' 상징벽과 3층의 영상작품 '돌아오기 위해 떠난 4000km'를 설치한 공간도 눈에 띈다.

임정기념관은 오는 2일부터 일반 관람객을 맞는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관람료는 무료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초대 관장은 아직 공식으로, 보훈처는 관장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없음
출장비용 없음

(채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회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가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 조적벽돌외벽 스킨층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 2 전원주택용 부지와 사채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산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트리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희마을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공주차장 3면도로점 남향 교통요지 시가지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1,276평) 매 ㎡ 9십만원
-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달달생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지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용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기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대지매매

**광주 상무지구
치평동 884-6**

2,816㎡, 852평

85억

010-6432-5070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최병철(700916-XXXXXX)
- 최후주소: 광주 북구 설죽로 370번길 7, 102동 305호(삼각동, 호반맨션)
- 피상속인 망 최병철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2년 119호로 신청하여 2022년 2월 18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 2022년 3월 2일
- 상속인: 최병규(711018-XXXXXX)
광주 남구 도대실로 89, 707동 901호 (노대동, 송화마을유원시아)
- 신고기간: 2022. 3. 2. ~ 2022. 5. 12.
- 채권신고처: 상속인 최병규의 주소

70년을 밝힌 호남신문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안내

북구	• 동광 266-1920	• 문흥 266-1960
	• 광광 525-3761	• 신안 222-9171
	• 양산 571-7658	• 오차 266-7601
	• 동광 433-1503	• 유산 433-1503
동구	• 동광 673-6836	• 동명 222-9054
	• 동부 225-6001	• 중앙 222-9054
	• 중앙 222-8171	
남구	• 남부 673-6836	• 배운 651-1833
	• 배운 673-6836	• 송하 675-6605
	• 진월 671-7276	
서구	• 광천 382-5788	• 상무 372-2352
	• 서광 369-1625	• 문흥 376-7153
	• 치평 376-0511	• 동명 603-0311
	• 화정 369-1625	
광산구	• 유남 952-1687	• 귀곡 959-1920
	• 청담 973-2900	• 하남 955-0451
	• 광산 944-0444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신문